

[경제]

인플레이션·경기 둔화 악재

국내 증시 '발목' 잡을까

전문가들 "완만한 조정" "반등 기대" 양론

'증시가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라는 두 가지 악재에 발목이 잡히고 말 것인가?'

글로벌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 인상,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에 부각되면서 동반 하강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 일각에서 작은 급락 장세는 '기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나섰다.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가 현실화된다면 주가하락은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인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작은 만큼 오히려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발상이다.

◇"인플레 우려 지나친다" = 12일 대우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증시의 동반 급락세를 야기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실제 지표상으로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1·4분기에 기록한 높은 성장률은 부동산 및 소비 조정과 함께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5월 고용통계가 시장의 예상치를 밀어면서 노동비용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은 14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세가 4월보다 다소 낮아지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내달 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80% 넘어서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추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기는 힘들다"면서 "국제유가가

현 수준에서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완만한 조정 예상= 대우증권은 국내외 여건 악화로 국내 경기도 하반기에는 상장을 둔화가 불가피겠지만 기술적 둔화 이상의 경기 조정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미 수출의 증가세가 소비재 보다는 자본 및 소재 부문의 호조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소비 둔화의 영향도 제한적인 데다 정부의 정책 부담으로 내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전월 대비 평균 0.4~0.5%의 성장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증권은 "이번 경기확장 국면은 외환위기 이후 3차례의 경기확장 기에서 공통적으로 벌어난 후에는 달리 벌어진 조짐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2006년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상반기 5.7%, 하반기 4.8% 성장하는 '상고하지'

의 흐름이 전개될 전망이지만 하반기에도 잠시 상장을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됨으로써 2005년 하반기 이래 진행된 완만한 경기확장 추세의 연장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반등 기대 = 대신증권은 급락 장세가 이어지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제반 기술적 지표들은 과매도에 따른 단기 반등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 이후 3차례 고점 형성 과정에서 고점 이후 평균 3주 동안 17% 하락한 이후 기술적 반등이 이뤄지면서 평균 9.6%의 상승률을 나타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반등 국면에서는 코스피지수 1,300선 회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증장기 국면에서는 최근의 주가 조정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상당기간 약세장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미 금리 역전...금융 위기 없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분석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미국의 일부 시장금리가 정책금리에 이어 한국보다 높아졌지만 이에 따른 급격한 자금 유출로 지난 97년과 같은 금융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전효관 수석연구원은 이날 정보사 이트 'SERI CEO'에 게재한 '한미 시장금리 역전,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서 "작년 8월 미국의 정책금리가 한국 콜금리를 주월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시장금리는 한국이 높았지만 지난달 이후 5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한국의 국고채 금리를 웃돌면서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 연구원은 "실제로 국가간 금리 차를 이용한 국제자금 이동이 빈번하고 단기간 대규모 자금이 유출입하

는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 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국내에 유입된 자금의 성격과 환율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우리나라에서 국내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외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에 유입된 국제자금은 대부분 주식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 증시의 성장 가능성이 선진국이나 여타 신증장에 비해 높다는 판단에 유지되면서 한미 시장금리 역전만으로 이들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향후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 자금 입장에선 낮은 금리로 발생하는 손실을 환율 변동으로 만회할 기회까지 남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정책금리는 제반 금융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여전히 경기 상승세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해 주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또 "총액환도대출제도의 운용기준을 지방소재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통화안정증권의 누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통화정책의 운용방식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창립 56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적용될 물가안정목표를 정책의 과급시자 등을 고려해 조기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리·환율·주가 등의 국제적 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변동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통화정책 운영에 해외요인을 더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책금리는 제반 금융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여전히 경기 상승세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해 주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또 "총액환도대출제도의 운용기준을 지방소재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통화안정증권의 누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통화정책의 운용방식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금리 및 외환시장 동향을 상시 짚고 있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공개시장 조작이나 외환거래 검사 기능을 적절히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리·환율·주가 등의 국제적 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변동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며 "통화정책 운영에 해외요인을 더 면밀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역시 '조선 한국'

1만TEU급 컨테이너선 건조

'꿈의 상선' 시대 열어

급 컨테이너선의 개발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주 작업을 진행하는 등 컨테이너선 대형화의 선도업체로 위용을 떨고 있다.

현대중공업측은 "현재 8천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의 수주 잔량은 총 80척으로 전세계 물량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만TEU급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또한 지난 7일 포스터 파나마스급(5천TEU급 이상) 컨테이너선 8척을 계약했는데 이 가운데 1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측은 "선주측에서

영업 전략상 1만TEU급 밭주를 숨겨달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1만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대형 선박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LNG선과 초대형유조선(VLCC) 전문인 대우조선은 1만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경험은 없지만 항후 수주를 위해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측은 "LNG선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동안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약간 소홀한 면이 있지만 1만TEU급 수주 능력이 충분하다"면서 "현재 1만TEU급 수주를 검토하는 단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도시 아파트 건물

고층 위주로 짓는다

송파신도시를 포함해 앞으로 대도시 주변에 건설될 신도시의 아파트 등 건물은 30~40층의 고층 위주로 짓어지고 전체 면적의 50%가 고원 등 녹지대로 조성된다.

12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학회는 정부가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압축도시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환경단체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연말 신도시계획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월드컵 선전 기원 '레드카'

화진화장품 직원들이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해 태극기로 장식한 붉은색 '레드카'로 서울-대전간 카페레이드를 하기에 앞서 12일 잠실종합운동장 앞에서 응원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청약가점제 2008년 도입

민간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

무주택 기간 등 따라 청약기회 차등

핵가족인 청년층과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가점항목에 소득을 포함하는 방안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시점에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아파트 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새 집을 마련하거나 집을 늘리는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셈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302만명이고 이중 1순위자는 192만명에 달한다.

건교부는 대신 공공택지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1주택 소유자라도 청약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복지부, 親 출산기업에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

기업가치 여전히 '저평가'

한국 증시, 주가이익비율 낮아

앞으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기업에 대해선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친(親) 출산기업을 선정, 출산·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수 기업으로 인증되면 점부 표창과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복지부는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말 정부가 마련할 정약제 개편방안에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 일반분양 아파트에도 가점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